

since 1986

SUNBO FAMILY

2011년 사업계획 해양 및 육상모듈 전문 초우량 상장기업

vol. 94 2011년 11월 15일

World Best
SUNBO Family

선보공업(주) 선보유니텍(주) 선보하이텍(주)

홈페이지 www.sunboind.co.kr

E-mail sunbo@sunboind.co.kr

대표전화 051 · 261 · 3454

본사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517-2

사훈 항상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자

제13회 부산마라톤대회

참가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2011. 11. 13(일) 요전 시

가을 햇볕이 내려쬐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감도는 지난 13일(일) 국제신문이 주최하고 부산육상경기연맹과 부산사회체육센터, 부산마라톤연합회가 공동 주관한 제13회 다대포마라톤대회가 풀코스, 하프, 10km 부분으로 나눠 다대포해수욕장 일대에서 진행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7,000여 명의 러너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 우리 회사는 141명이 출전하여 역대 최대 참가라는 신기록을 세웠다. 약 3개월 전부터 마라톤 대회를 준비해 온 우리 회사 임직원과 가족들은 전원 완주를 목표로 10km에 출전하였다. 이는 완주하여 하나 된 단합심을 보여주기 위한 취지에서 였다.

회사 로고가 찍힌 밝은 주황색 유니폼을 착용하여 일체감을 조성한 우리 선보 가족들은 경기 내내 단합된 마음으로 힘든 고비를 이 유니폼을 보면서 이겨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직원들과 가족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라톤대회를 찾은 최금식대표는 “열심히 준비하고 도전해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만이 갖는 완주의 감동은 그 무엇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며 오늘의 경험을 바탕으로 건강의 중요성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인내심을 요구하는 마라톤이 앞으로 선보인들의 인기스포츠로서 자리매김했으면 좋

겠다”고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올해는 가족들의 참여가 많아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낙동강변을 달리며 주말의 여유와 건강한 활기를 동시에 찾았다고 입을 모았다. 마라톤대회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있는 총무안전 김상진팀장은 “예년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마라톤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며 특히, “회사 유니폼을 입고 다 함께 땀 때는 가슴 뭉클함과 애사심을 깊이 느낄 수 있었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마라톤 대회 이후 참석찬 동료, 가족들과 다과를 들며 담소를 나누고 단체 사진을 찍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도 했는데 우리 회사는 앞으로 임직원들은 물론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이 같은 행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오는 12월 둘째 주에는 그린등반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송년회와 함께 이루어질 이날 행사는 가족들과 함께 이번 연말을 뜻깊게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개인종합 1위 정호경 상무님)

Inside SUNBO 회사소식

가족간담회 개최 '가족친화경영'의 모범을 보여



우리 회사는 지난 12일(토) 다대본사 공장 4층 회의장에서 임직원 부모 및 가족 30여명을 초청하여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하고, 가족과 함께 즐겁게 일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가족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명실 공히 “가족친화회사”로 큰 걸음을 내딛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금식대표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우리 회사가 타 기업에게 가족친화경영의 모범을 보여주고 확산시키는데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진행된 최상식 부사장과 의 간담회에서 임직원들과 가족들은 많은 의견을 교환했으며 다양한 견해가 표출되어 새삼 가족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으로 이어졌다. 이후 임,직원과 가족들은 본사 사무실과 다대2공장을 돌아 본 후 구평공장과 감전공장을 둘러보는 공장투어를 참관하였는데 선진화된 시설 규모와 회사 발전에 연신 감탄사를 아끼지 않았다.

간담회에 참석한 총무안전 김상진팀장은 “다른 회사와 대기업에서는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가족친화적인 이번 행사를 통해 회사와 사원가족이 한결 더 가까워 질 수 있게 해 준 것에 대해 회사 대표님과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설계부 정금영사원의 부인 정주희씨도 “저도 4년 넘게 설계 일을 해왔지만 매달 가족을 위한 행사를 여는 기업은 처음이다. 덕분에 남편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지 알 수 있게 되어 감사하고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Inside SUNBO 회사소식

SHWE SKID 성공적납품 해양플랜트 수주와 산업적 진입에 '큰 걸음'



우리 회사는 지난 17일 Global Process System의 발주를 받아 현대중공업해양으로부터 수주한 SHWE SKID(프로젝트명 : MEG Regeneration Skid)를 성공적으로 납품하였다. 이번에 납품한 SHWE SKID는 구평 유니텍작업장에서 올 6월초부터 제작에 들어 간 것으로, 올해 말까지 납품될 예정인 MEG 6세트, PWT 1세트 중 MEG 2세트가 선 납품 된 것이다. 우리 회사는 지난 9월 28일 삼성에서 수주한 TAKULA GAS PROCESSING PLATFORM PROJECT UNIT을 납품하여 생산 기술력의 진보와 설계 기술력을 업계에 과시하기도 했는데 이번에 또 우리 회사 자체 기술력만으로 SHWE SKID를 제작 납품함으로써

향후 해양플랜트의 수주와 산업기반을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품질부 김건우 차장은 “진행과정 중 설계수정과 추가가 많아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 작업을 계기로 영업,설계,구매,생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가 충분히 습득되어 설계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말했다.

이번의 성공적인 납품은 설계 경험이 풍부한 김건우 차장의 지도 편달 아래 고품질 제품을 생산한 생산부서 및 적소 적기에 자재조달에 힘써 준 구매부 등 모든 구성원의 노고의 산물로서 향후 회사의 발전의 교두보가 된다는 측면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

Inside SUNBO 회사소식

ASICA 경영교육 실시

우리 회사에서는 지난 10월 28,29일 양일간 “글로벌 경쟁력향상의 핵심인 재 육성을 위한 낭비 제거의 창조적 혁신”이라는 주제로 조직경영전문가를 초빙하여 생산직 임직원을 대상으로 ‘낭비제거에 관한 경영교육’을 실시하였다. 장철화 경영연구소장을 강사로 총 17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교육은 이전의 ‘PADO’라는 MIND교육과는 달리 현장에서 일하는 임직원들을 위주로 생산 현장 내에서 낭비 요소를 찾고 그에 대한 해결방법을 모색하는데 시간을 할애하였다.

교육 첫날 최금식대표와 생산직 임직원 45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익을 내기 위해선 낭비를 잡아라!”라는 문구로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되었는데 최금식대표는 “이상과 목표가 있다면 낭비제거는 가능하다. 낭비제거는 고객

의 가치를 철저히 추구하는 것이다. 낭비를 고객에게 전가하면 고객은 돌아서기 마련이다”고 전제하고, “우리 회사의 위기는 진정으로 고객을 생각하는 기업으로 재탄생 할 때 사라지게 되는 것임을 인지해 주길 바란다.”고 낭비제거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생산직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최초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진행 내내 임직원들의 열띤 호응과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는데 낭비제거의 기본정신을 강조한 강의와 동영상 시청 후 개별 설문지를 작성하여 6개조를 구성, 각자의 의견을 취합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사업기획 이기환 대리는 “관리직 위주의 MIND교육은 많았지만, 현장에서의 생산직 직원을 위해 마련한 교육프로그램은 처음이었다.



생산직이라 강의에 대한 관심도가 크지 않을 것이라 우려가 기우였을 정도로 직원들의 참여도가 높고 열의도 뜨거워 놀라웠다”며 “이번 강의를 계기로 우리가 평소 소홀히 했던 낭비 요소를 발견하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이었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도 우리 회사는 관리직 위주의 교육뿐만 아니라 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생산직 중심의 경영교육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인데 다가오는 연말 교육에는 더욱 알찬 강의와 프로그램을 준비해 회사 발전과 경쟁력향상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1박2일 동안 탁월한 강의를 선보인 장철화 경영소장과 성공적 교육성과를 달성하기 최선을 다한 최금식대표를 비롯 모든 생산직 임직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는 것도 이런 밝은 미래에 대한 준비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Inside SUNBO 회사소식

사랑나눔 헌혈행사



우리 회사는 지난 10월 20~21일, 4회째 진행하는 ‘사랑 나눔 헌혈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헌혈행사에는 다대공장을 비롯 구평공장 직원 70여명이 참석하여 훈훈한 이웃사랑을 실천하였

데 우리 회사는 2010년부터 ‘헌혈을 통한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자’는 취지에서 매년 두 차례씩 대한적십자사의 협조를 받아 사내 주차장에서 출장헌혈방식으로 헌혈행사를 진행하고

2년째 헌혈로 훈훈한 ‘이웃사랑’ 실천

있다. 기존 헌혈자 중심의 헌혈기준이 수혈자 중심으로 바뀌면서 헌혈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져 보통의 직장에서 실제 헌혈 성공률은 10%로 내외인데 우리 회사는 전날 음주자, 피로누적자, 약물복용자 등 부적격자를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헌혈 참여자 중 50%이상의 높은 헌혈 성공률을 보였다.

이날 직접 헌혈차량을 방문한 최금식대표는 “매년 직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헌혈행사 참여자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어 기쁘다”며 “여러분의 헌혈을 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가 어우러져 끈끈한 동료애를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또, “내년에는 소아암

을 겪고 있는 환아를 직접 돕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볼 생각이다.”고 말해 헌혈현장을 더욱 훈훈하게 만들었다.

헌혈에 참가한 총무안전 김종신대리는 “참여인원이 저조할 줄 알았는데 많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놀랐다.”며 “주사바늘이 들어가는 1초의 찡그림으로 내 혈액이 정말 소중한 곳에 사용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뿌듯하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우리 회사는 상하반기로 나눠 정기적으로 ‘사랑 나눔 헌혈행사’를 진행하고, 헌혈캠페인 포스터를 사내에 부착하는 등 직원들의 관심을 최대한 고취시킬 예정이다. 그 외 연말연시를 맞아 사회적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영화 ‘도가니’ 영화 관람 ‘탄탄한 즐거위, 진 여운 받기

광주 인화학교 교직원들이 청각장애 학생들을 성폭행한 충격적 실화를 다룬 영화 ‘도가니’가 우리 사회를 말그대로 도가니 속처럼 들끓게 하고 있다.

우리 회사도 지난 19일 사회적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영화 ‘도가니’ 관람권을 우리 회사 임직원들과 협력사에 1인당 2매씩 지급했다.

매달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문화행사의 일환인 영화 관람을 마친 후 김종신대리(총무안전)는 “아직도 격분이 가라앉지 않는다. 사회적으로 큰 충격

을 준 파렴치한 사건이 끝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버렸다는 점과 그 대상이 사회적 약자라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고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임에 그 여운도 길다”며 “원작의 탄탄한 즐거위를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로 깊이 파고드는 구성에 개인적으로 두 번째 관람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루함을 느낄 수 없었다.”며 주말 영화관람을 통해 가족문화생활에 도움을 준 회사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회사소식

외국인직원들 한국체험

정호경 상무 초청 ‘즐거운 첫 경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6일 1,2,3공장의 인도네시아인을 비롯 총 7명의 외국인노동자들이 사하구 다대동의 정호경 상무 댁을 방문하였다.

이들은 우리 회사에서 실시하는 ‘한국가정체험’ 프로그램에 참석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일반음식점에서 외식을 하는 형태로 진행해 왔으나 정상무의 초대로 한국 가정집을 직접 방문하게 된 것이다.

사실상 외국인 노동자의 첫 방문이기도 한 이날 자리를 마련한 정상무는 “한국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좀 더 한국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집들이’ 하듯 초청했다”며, 거실 가득 한국 전통 음식으로 맛있는 만찬을 준비했다. 닭볶음탕, 소고기볶음(불고기)과 한국에서만 느낄 수 있는 미역국과 밥, 반찬들까지 한상 가

득 푸짐했다. 우리 회사는 최금식대표의 적극적인 후원 속에 오래전부터 소외된 사람들, 즉 외국인노동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따뜻한 한국의 온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꾸려나가고 있다. 이 체험 프로그램의 취지에 크게 공감을 하고 있다는 신성인 생산관리 과장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 경제를 뒷받침해주는 ‘고마운 이웃’이므로 그들과 더불어 함께할 행사가 더욱 많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Inside SUNBO 회사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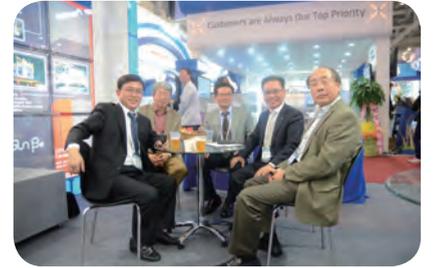
부산국제조선해양대제전(마린위크 2011)참가 선보공업 참여 '탁월한 조선 해양기술' 뽐내

세계 4대 조선·해양 전문전시회인 부산 국제조선해양대제전(마린위크 2011)이 지난 10월 26~29일 부산 해운대 벅스코에서 화려하게 개최 되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마린위크는 조선해양산업 전시회의 대형화·국제화를 위해 해양방위산업·항만물류·조선 산업 분야별 3개 전시회를 통합해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45개국, 1,280개사가 참가했는데 조선해양산업전은 전체 1,400여개 부스가 설치돼 지난해보다 10%정도 규모가 커졌다. 올해 부산에서 열린 국제조선해양대제전의 경우, '지경부 Global Top 5 전시회'로 선정되어 독일선박조선기자재전시회(SMM), 노르웨이조선기자재박람회(Nor-Shipping) 등과 함께 세계 4대 조선해양 전문전시회로 자리매

김하는 등 위상이 날로 커지고 있다. 전시회장에는 최첨단 기술을 내세운 우리나라 대표 조선기업인 현대중공업과 STX(株)의 계열 조선 및 기자재 업체들의 부스가 위엄한 자태를 뽐내며 전시회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국제조선해양대제전에 3번째로 참여하는 우리 회사는 지난 8월부터 신제품과 신기술을 바이어들에게 홍보하고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해왔다. 부스의 디자인도 기존 업체가 아닌 신규업체로 교체하고, 기존동영상을 수정, 보완하여 바이어들의 이해력을 높였는데 그 결과, 중국, 일본 등 바이어들에게 우리 회사가 조선사업체와 기자재에서 상위Class에 속해 있음을 인식케 하는데 큰 효과를 거두었다. 이에 대한 결과는 외국 바이어들의 쇄도한 상담요청으로 여실히 드러났

는데 전시장을 방문한 최금식대표는 "MARINEWEEK2011 전시회를 기술발전과 정보교류 촉진의 장으로 활용하여 우리 회사가 글로벌 조선 해양플랜트 기업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에 관련된 부스와 영상 등 전반적인 기획을 담당한 영업부 유무성과장은 "우리 회사가 일구어 낸 개발, 생산의 경험과 실적을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외에 알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해외 고객들과 많은 상담을 통해 우리 회사의 헬리콥터 리퍼어링 시스템 체계의 우수성을 알리고 해양플랜트 체계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시가 끝날 무렵까지 선주문 4건 이상을 받는 등 외국 바이어들에게 큰 관심을 받아 온 우리 회사는 향후 조

선 해양플랜트의 중추역할기업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임을 이번 전시를 통해 여실히 증명해 보였다.



구평동청년회가 주최한 가족체육대회에 우리 회사 직원 및 가족들이 참석하여 친선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다. 지난 10월30일 구평동초등학교에서는 열린 이날 행사는 축구경기와 함께 각종 경기종목에서 그동안 숨겨둔 실력을 뽐내는 등 명실 공히 지역민 가족체육대회로서 뜨거운 열기가 넘쳤다. 특히, 구평 사하구에서는 우리 회사

Life 문화소식 선보축구동호회 "구평동 가족체육대회" 출전 한마음으로 선전 '통합 2위' 영예 차지

선보FC가 출전하여 동양제강, 대양전기팀과 조기 축구동호회인 수우조기회, 별리FC, 봉황FC 등과 경쟁을 펼쳤다. 오전7시부터 오후4시30분까지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우리 회사 선수와 가족 등 총 30여명이 참석해 축구경기와 응원 등으로 상호 간의 친선과 화합을 다졌다. 동호인 축구 예선 경기를 비롯하여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줄넘기, 여자 패네틱 대회, 코끼리코 돌고 패네틱 대회, 남녀혼성계주 등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종목마다 점수를 매겨 우승자에게 푸집한 경품과 부상이 주어졌다. 선보FC는 동양제강과 봉황FC를 상대로 예선전을 치러 아쉽게 탈락하는 고배를 마셨으나 가족체육대회의 종목에서 가족들과 함께 한마음

으로 선전하여 통합 준우승이라는 쾌거를 안았다. 종목마다 점수를 환산하여 1등은 1,380점을 달성한 수우조기회가, 2등은 890점으로 선보 FC, 3등은 880점으로 대양전기팀이 차지했다. 이 행사에 참여한 설계6팀 민병철과장은 "예선 첫 경기라 참석이 많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합류하여 여느 체육대회 못지않게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어냈다."며 "가족들과 직원들이 함께할 수 있는 행사가 되어 다른 무엇보다 즐거웠다"고 말했다. 앞으로 우리 회사는 가족친목행사를 매달 진행, 임직원 및 직원가족들을 위한 화합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이 행사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장철

민 총무와 음식준비를 담당한 최우호 과장에게 많은 사람들이 노고를 치하하기도 했다.



Inside SUNBO 우수협력업체



약 1시간동안 차를 달려 도착한 곳은 김해시 진례면. 취재팀은 시골 정취가 물씬 풍기는 도로를 끼고 돌아 '효신산업'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는 공장 사무실로 향했다. 이번에 방문하게 된 효신산업은 1997년 첫 출발해 14여년째 선박용 벨브를 제조하고 있는 업체로 우리 회사와는 8개월 전부터 새로운 인연을 맺어오고 있다. 우경섭대표와 첫 만남은 친절과 겸손

"항상 고마운 마음으로 직원들을 대합니다" 효신산업 - 우경섭대표

함이 공존하는 밝은 미소와 함께 시작되었다. 우대표가 들려주는 효신산업은 "고객의 요구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선보에서 긴급을 요할 경우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피력했다. 효신산업은 현재 생산품의 40% 정도를 동남아, 미국, 유럽, 중동 등으로 수출중이며, 30% 정도를 일본과 거래하고, 나머지 30%를 국내기업들과 거래하고 있다. 국내기업으로는 STX, 현대삼호, 삼성, 대산 등 많은 대기업이 있지만 그중 우리 회사가 국내 업체 중 가장 높은 매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

다. 거래처와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품에 있어 착오 없이 꾸준히 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우경섭대표. "하면 된다"는 사훈을 갖고 직원들과 힘을 합쳐 효신기업을 이만큼 이끌어 온 만큼 자신을 믿어주고 따라주는 직원들이 있어 든든하다고 말한다. "직원들에게 항상 미안하고, 잘 못 챙겨 주는 것 같아 안타깝고, 고맙고,,,더 잘해주고 싶죠."라며 더 이상 말은 잊지 못하는 우대표의 표정에서 회사와 직원 사랑의 깊이를 가늠할 수 있었다. 직원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뭉쳐진 효신산업의 앞으로의 계획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대표는 대부분

의 기업이 그러하듯 "매출증대와 사업확장이 최우선"이라고 말한다. "노사간 타협으로 일하기 좋은 회사"가 되길 바라는 그는 "그동안의 어려움을 극복해온 만큼 앞으로도 노사가 푹푹 뭉쳐 지금의 난관을 지혜롭게 헤쳐 나갈 것"임을 다짐했다. 우리 회사와 관계에 있어서도 "동반 성장과 발전의 과실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Run SUNBO Run **생생 현장의 소리**



최재호 차장

다대공장

Q. 입사는 언제 하셨나요?

2001년 입사하여 올해 회수로 만10년차입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지나다 보니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Q.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고 계신가요? 업무 중 가장 신경쓰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선보다대공장 기술개발 설계2팀에서 근무하며 주 업무는 연구소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개발 업무에 코치 및 진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입사원들의 능률 제고가 최우선 과제”, 다대공장 기술개발 설계2팀 최재호 차장

니다. 연계되어 있는 부서에서 넘어오는 작업의 수정 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Q. 평소 어떤 마음가짐으로 근무하시나요? 저는 두 가지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당연히 건강입니다. 병원에 가는 일없게 하기 위해 항상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는 업무에 있어 전반적으로 확실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부서는 타부서에서 진행되지 않는 부분을 먼저 시행하는 부서라 앞서 가르치고 숙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이 주어졌을 때 기본적인 것부터 파악한 뒤 일을 처리해 나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Q. 일을 할 때 가지고 계시는 노하우가 있나요? 지인들과 경험이 많이 있는 분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사전에 자료검색을 충분히 한 뒤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업무 중 언제 가장 보람되시나요? 우리 후행의 부서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다고 말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이런 보람은 제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Q. 선보에서 오래 일하셨는데 어떤 점들이 좋았나요? 중소기업의 특색에 맞게 다양한 부서를 경험을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간접경험을 많이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신속한 일처리방법을 깨우쳐 업무의 방향성을 명확히 할 수 있게 된 것이 큰 기쁨입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은? 구매, 영업, 생산 관리 등 많은 경험을 했지만, 앞으로 좀 더 새로운 일을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후임인 신입사원들의 기량을 키워 일을 처리할 수 있

도록 만드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겠지요. 제가 쌓아온 경험과 지식들을 많이 전수해 신입사원들의 능률을 높이고 싶은 것이 향후 제 목표입니다.

Run SUNBO Run **축하합니다**



다대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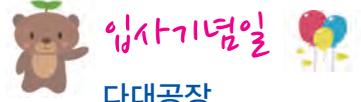
- 설계1팀 정현주(음10/07)
- 설계2팀 박현수(11/04)
- 설계3팀 문중현(음10/23), 심근우(11/02), 고중현(11/16)
- 설계4팀 황제환(11/03), 신유철(11/18), 박항수(11/16)
- 설계5팀 유병창(09/04), 이석형(10/08), 윤치호(10/16), 김창중(10/21), 이순복(11/20)
- 설계6팀 홍성원(10/10), 나소명(11/04)
- 1공장 정재현(11/25), 김수환(11/28)
- 2공장 김승현(11/09), 강지은(11/15)
- 3공장 최철(11/06)
- 강재현반 백선우(11/02)
- 신제품개발 장호길(11/15)

구평공장

- 평항산업 안석영(11/03), 하동현(11/20)
- 서경트렌트 김광주(11/11), 이홍주(11/11)
- 양정수(11/17)
- 보성산업 성기욱(10/24), 차동현(11/05), 노만석(11/12), 성민형(11/17), 장정현(11/22)

영도공장

- 품질보증 박현일(11/08)
- 고객지원 이영근(11/16)



다대공장

- 경영지원 이종필(11/01)
- 황수영(11/01), 김광수(11/29)
- 자재조달 김동관(11/21)
- 품질보증 이현수(11/01)
- 사업기획 이기환(11/21)
- 영업1팀 유무성(11/09)
- 설계3팀 이철훈(11/01), 최순찬(11/24), 심근우(11/29), 최원섭(11/29)
- 설계4팀 황제환(11/01), 신유철(11/01), 오성진(11/01), 권희정(11/01), 최원석(11/01), 광봉제(11/01)
- 1공장 배송용(11/01), 강지은(11/04)
- 2공장 진정현(11/16), 김충민(11/25), 서원수(11/25)

구평공장

- 품질보증 김현우(11/09)

영도공장

- 품질보증 박근우(11/10)
- 생산관리 이정훈(11/01), 김태경(11/13)

Run SUNBO Run **칭찬 릴레이**



이병근 주임

다대공장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쑥스럽다는 웃음이 많은 그러나 누구보다도 선보를 향한 열정적인 마음을 지닌 다대공장 배관1관의 이병근 주임, 그가 11월의 칭찬릴레이 주자로 선정되었다.

Q. 이번호 선보가족 칭찬릴레이 주자로 뽑히셨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동료가 주는 칭찬이니까 기분 좋습니

근면, 성실의 열혈일꾼, 다대공장 배관1관 이병근 주임

다. 저 말고도 주변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선정되었다니 쑥스럽네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Q. 평소 어떤 마음가짐으로 근무하시는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배관의 티그용접을 맡고 있습니다. 이는 선박이나 해양구조물 등을 제조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 특히 해양구조물은 높은 파도와 바닷물의 압력 등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용접에 불량률이 없어야 합니다. 자칫 용접 불량이라도 있어 바다 한 가운데에서 물이라도 새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불량 0%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Q. 선보에서 일하신지 5년이 지났는데 소감은? 우리 회사가 조선분야 뿐 아니라 이제는 해양플랜트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 조직의 일원으로서 자부심과 기대가 큼니다. 그만큼

나 스스로도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느낍니다. 아직도 배워야 할 게 많다고 생각하며, 끝없는 탐구정신으로 일에 전념하고 싶습니다.

Q. 끝으로 하고픈 말씀이 있으시다면...? 제 삶의 원동력은 아내와 두 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라도 다치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함께 일을 하는 동료들도 항상 이를 생각하고 스스로 건강을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Q. 다음 칭찬 릴레이 주자를 추천한다면?

보은반 배회진팀장님을 추천합니다. 예전에 배관 팀에서 함께 일했는데 언제 어디서든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지금은 보은 반으로 옮겨 힘든 작업을 도맡아 하고 있는데 힘들어도 꾀없이 헤쳐 나가는 모습이 멋져 다음 칭찬릴레이 주자로 강력 추천 드리는 바입니다.

칭찬릴레이는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는 아름다운 문화가 선보에 정착되기를 바라며 펼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Run SUNBO Run **틀린 그림 찾기 - 5곳을 찾아 주세요!**

이달의 사진 - "SHWE SKID" 납품 사진

